



게임 디자이너스 대상 2016

“Life is Strange”

(DONTNOD Entertainment)

플랫폼: PS4 / PS3 / PC

일반사단법인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협회

‘일본게임대상 2016(JGA 2016)’(주최: 일반사단법인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협회, 약칭: CESA, 회장: 오카무라 히데키)은 “Life is Strange”(DONTNOD Entertainment/플랫폼: PS4 / PS3 / PC)를 2016 년도의 ‘게임 디자이너스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상 이유에 대해 게임 디자이너스 대상의 심사위원장인 사쿠라이 마사히로 씨(유한회사 소라 대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

“Life is Strange”은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Time Rewind)을 가진 여학생이 주인공인 작품입니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 등의 Time Leap 과 달리, 본인이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서 단기간만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사해서 밀실에 들어가는 등 퍼즐적인 요소도 즐길 수 있는 작품인데, **진면목은 선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다른 선택을 해보면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길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초반에 폭력을 경험한 친구가 자살을 시도하는데, 살게 되든 죽게 되든 게임은 진행됩니다. 입원 장면이나 장례식과 같은 장면도 있습니다. 또한 선악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최종 선택지는 매우 큰데, 플레이어 사이에서 ‘비앙카와 플로라, 누구랑 결혼했어?’하는 목직한 주제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Time Rewind 는 PC 게임에 주로 사용됩니다. 레이스 게임 등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어드벤처 게임에서 채용된 예는 없기 때문에, 많은 선택 폭에 대한 노력 등이 평가되어, 이번에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일본을 대표하는 11명의 톱크리에이터가 프로의 관점에서 ‘독창성’과 ‘참신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대상 작품을 선출하였습니다.

일본게임대상의 한 부문인 ‘게임 디자이너스 대상’은 향후 게임산업 발전의 하나의 지표가 되는 창조성 풍부한 작품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내년의 ‘게임 디자이너스 대상’도 기대해 주십시오.